

LG, 화학·전자 통합 결과는?

2003년 3월 1일 (주)LG로 재출범 … LGCI가 LGEI 흡수합병

LG그룹 통합 지주회사인 주식회사LG가 2003년 3월 1일 출범한다.

LG 화학부문 지주회사인 LGCI와 전자부문 지주회사인 LGEI는 11월 28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했다.

LGCI와 LGEI는 경영효율성과 상승(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3년 3월 1일 LGCI가 LGEI를 흡수·합병하고 합병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통합 지주회사 상호를 (주)LG(LG Corp.)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통합 지주회사 LG는 기존 50개 계열사 가운데 LG증권, LG투신운용, LG카드, LG선물, 부민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계열사와 비주력 계열사인 LG건설, LG상사, 2003년 계열 분리되는 LG전선, LG-Caltex가스, 극동도시가스, LG-Nikko동제련 등 4사를 제외한 38사를 거느리게 된다.

LG 구조조정본부는 LGCI와 LGEI의 합병절차가 마무리되면 출자와 사업이 분리되는 지주회사 체제를 갖춰 차별된 선진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게 되며, 대주주가 지주회사를 장악하고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지배하는 체제로 개편되면 명실상부하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토대가 된다는 주장했다.

LG 이사회는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LG건설 회장, 성재갑 LGCI 부회장, 강유식 LG 구조조정본부장 등 4명과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구자정 전 하나증권 회장, 김용진 안전회계법인 고문, 신영수 연세대 교수 등 사외이사 4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된다.

LGCI와 LGEI는 2003년 1월 29일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합병비율은 보통주가 LGEI 주식 1주당 LGCI 주식 1.8282주, 우선주는 LGEI 주식 1주당 LGCI 주식 1.5572주이다.

한편, LG는 통합 지주회사 출범을 통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출자부문과 사업부문을 분리해 국내 대기업집단 병폐로 꼽히고 있는 계열사간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법률적 차원에서 지위를 확보하는 대주주도 떳떳하고 사업을 철수하거나 매각하는 일도 손쉬워진다.

지주회사는 출자를 전담하고 자회사들은 출자에 대한 부담 없이 고유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또 출자구조 단순화를 통해 시장에서 경영투명성을 인정받는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 지주회사는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극대화를 달성하는데 보탬이 되며 소액주주 권익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씨와 허씨의 분리경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1947년 LG그룹 출범 이후 55년간 동업관계를 유지해온 구씨와 허씨는 계열 전체 출자지분을 현재까지 7대3 비율로 유지해 왔다. 허씨는 건설·유통·정유를 맡고 구씨는 나머지를 맡는다는 합의에 따라 지주회사 출범 이후 허씨 소유 계열사 분리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우선 LG건설과 한무개발 소유권은 허씨 일가로 넘어갔다. LGCI와 LGEI는 보유중인 LG건설 주식 984만 3510주(19.3%)를 허씨 일가에게 넘겼다. LGCI는 또 인적 분리된 LG생명과학 지분 1.2%를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12/ 02 >